

제1회 부산시 4대 사찰 가을 한마음체육대회

불심 키우고, 승부도 겨루고...



어느 경기보다 치열한 접전을 펼친 해원정사(왼쪽) 대 성암사의 배구경기.

정량한 가을바람이 부는 한 학교의 운동장에서 부산지역의 범어사(주지 정여), 해원정사(주지 원허), 흥법사(주지 심산), 성암사(주지 응현) 주지스님과 신도들이 풍근 공 하나를 앞에 둔 채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제1회 부산시 4대 사찰 가을 한마음 체육대회’가 11월 8일 오전 10시부터 금정중학교(교장 현익재) 운동장에서 열렸다. 매년 자체적으로 가을운동을 가져온 성암사 주지 응현 스님이 보다 더 많은 불자들이 즐거움을 함께하고 싶어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에게 제안을 했고, 이에 해원정사와 흥법사 주지 원허 스님과 심산 스님도 흔쾌히 동참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드디어 체육대회 날, 대회에 앞서 저마다의 특색을 한껏 뽐내며 각 사찰별 선수단이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아 중앙 단상 앞으로 모였다. 먼저 근사한 갑옷을 입은 기사의 진두지휘에 맞춰 성암사 선수단이 입장을 하고, 뒤를 이어 커다란 연등을 든 범어사, 어린이 사물놀이패의 장단에 덩실덩실 춤을 추는 흥법사, 예쁜 치어리더와 함께 한 해원정사의 선수들이 차례로 입장했다.

이어 개회식을 갖고 <반야심경> 봉독, 정여 스님의 개회선언 및 대회사, 심산 스님의 축사, 원허 스님과 응현 스님의 격려사, 선수대표단 선서 등이 차례로 진행됐다.

정여 스님은 “오늘 함께한 4대 사찰은 평소 불교 발전을 위해 대중불교에 모범적으로 앞장서 온 곳들인데 한 자리에 모여 너무 기쁘다”며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매년 발전시켜 부산의 18개 불교종단이

함께 화합하는 체육대회로 키워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심산 스님도 “불교가 기도나 법회를 통해서 신도를 이끌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체육대회나 다양한 문화를 통해 한마음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며 체육대회를 축하했다.

진지한 개회식이 끝나 자신나는 음악에 몸을 싣고 신나게 몸을 흔들며 준비운동을 하고, 5초간 합성을 질러 목혀둔 스트레칭까지 가을바람에 날려 버리며 체육대회에 임할 몸과 마음의 준비를 마쳤다.

첫 번째 경기는 OX 퀴즈. 우리나라 삼보사찰, 부처님의 탄생 등에 관한 1~3번 문제는 오묘하게 전원 통과였지만, 지하철 한 칸의 출입문 개수를 묻는 문제에서 대거탈락의 위기를 맞았다.

정답은 10개였다. 하지만 탈락의 서운함도 잠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400m

공양미 메고 달리기, 승부차기, 족구, 배구, 줄다리기, 400m 계주 등 남자부 2종목, 여자부 4종목, 남녀혼합경기 4종목 등 총 10종목의 경기가 쉴 틈 없이 이어져 운동장은 그야말로 흥분의 도가니였다.

선수들은 다 같은 부처님의 제자요, 도반이지만 승

부에 민감했고, 유독 잘 하는 선수가 계속 서브를 넣으면 심판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기 후에는 뜨겁게 안아주며 경쟁을 넘어 우정을 나눴다. 그리고 보살 선수들의 승부차기에는 스님들이 직접 “왼발로 차서 골키퍼의 빈틈을 노려라” 또는 “발 안쪽으로 차야 공이 뜨지 않는다” 등 특강을 하기도 했다.

체육경기와 더불어 사찰간 응원전은 또 하나의 장외전으로, 구슬땀을 흘리는 선수들 못지 않게 열정적이었다. 범어사는 검정색, 성암사는 빨간색, 흥법사는 흰색, 해원정사는 분홍색의 티셔츠를 맞춰 입었다. 특히 해원정사 응원단은 대학축제에서나 만나볼 수 있는 화려한 복장을 갖춘 치어리더들과 익살스러운 분장을 해 흥겨움을 더했

다. 이윽고 점심공양 시간이 되자 소나기가 내려, 한층 고조됐던 흥분과 더위를 식혀줬다. 그동안 매년 가을운동을 열어 온 성암사 선수단은 경력만큼이나 출중한 실력으로 세 사찰 선수단을 긴장시켰고, 오랜 역사의 경남불교대학 동문회원들이 진행요원 및 심판으로 활약을 체육대회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 해원정사와 흥법사 신도들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중심답게 젊은 선수들이 대거 참여해 젊음의 패기를 한껏 과시하기도 했다. 범어사는 부산을 대표하는 제15고구 분사다운 질서와 수준 높은 경기운영 능력으로 타 사찰의 모범이 됐다.

원허 스님은 “해원정사에서 약 10년 전 자체적으로 운동을 개최한 적이 있었는데 부득이 차일피일 미뤄왔다”며 “이렇게 신선하고 유쾌한 행사를 통해 신도간에 단합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체육대회가 끝난 뒤 노래자랑 및 시상식이 바로 이어졌다. 행운권을 추첨과 종합시상, 종목별 시상, 노래자랑 시상 등 총 390만원의 상당의 대회 우승기와 트로피, 드림세탁기, 황토매트, 밀폐용기세트 및 무선 커피포트 등 생활품 상품이 열심히 땀을 흘린 선수들에게 전달됐다.

4개 사찰 중 어느 절이 1등의 영예를 안았을까? 승패를 떠나 이번 대회를 통해 선수를 비롯해 참가한 모든 불자들은 진정한 화합을 이뤘고, 동참자 모두가 승리의 기쁨을 나눴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범어사 해원정사 흥법사 성암사 연합 운동회 ‘열기’ 총 10종목 흥분의 도가니... 배구 결승전은 프로급



체육대회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 참석한 4대 사찰 주지 (좌로부터) 응현 스님(성암사), 심산 스님(흥법사), 정여 스님(범어사), 원허 스님(해원정사).



‘첫 먹단 힘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는 줄다리기 선수들.

新 제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 판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

전화 031)766-0242~3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14-1 일본산 후리(자이행단) 13-1 일본 영원행(소바라) 13-2 일본 영원행(소바라)

2-1 아광용 링크 70 x 35cm / 2-2 밀납초 반야심경 70 x 35cm / 2-3 옥황초·아광용 70 x 35cm / 2-4 봉황복 진사지 70 x 35cm

7-1 P.C 컵 밀납초 받침대 / 7-2 P.C 컵 밀납초 연소시간 약 8시간 / 7-3 바람막초

5-1 웨딩초 옥각초 70 x 45cm

15-1 액체 파라핀 18L